

간호대학생의 학습동기 경로모형에 대한 융합적 연구

임정혜*

창원문성대학교 간호학과

A Convergence Study on the Path Analysis of Motivation toward Learning of Nursing Students

Junghye Lim*

Department of Nursing, Changwon Moonsung Universtiy

요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비판적사고성향, 문제해결능력과 학습동기 간의 인과관계와 경로를 파악하기 위한 융합연구이다. 대상은 일 대학 간호학과 학생 207명이었다. 자료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수집하였고, PASW 18.0, AMO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학습동기에 대한 경로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적합하였다($\chi^2/df=2.128$, GFI=.995, AGFI=.949, RMSEA=.074, CFI=.993, NFI=.988). 학습동기에 자아존중감($\beta=.205$), 문제해결능력($\beta=.420$)은 직접효과, 비판적사고는 간접효과($\beta=.182$)를 나타내었다. 또한 자아존중감이 비판적사고($\beta=.398$), 비판적사고는 문제해결능력($\beta=.433$)에 직접효과가 있었다. 즉,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이 높으면 비판적사고와 문제해결능력도 높아지고, 학습동기도 높아지므로, 학습동기 향상을 위해서는 자아존중감 강화 교육프로그램이 선행되어야 함을 확인하였다.

• 주제어 : 간호학생, 자아존중감, 비판적사고, 문제해결능력, 학습동기

Abstract This study is convergence study of path model for the relationship among self esteem(S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CTD), problem solving skills(PSS) and motivation toward learning(MTL). The survey was performed on 207 nursing students in one college. Data was collected using a structured questionnaires and analysed with PASW 18.0 and AMOS 18.0. Model fit indices were in good agreement with recommended level($\chi^2/df=2.128$, GFI=.995, AGFI=.949, RMSEA=.074, CFI=.993, NFI=.988). Based on the path model, SE($\beta=.205$), PSS($\beta=.420$) showed a direct effect on MTL while CTD($\beta=.182$) showed a indirect effect on MTL. The SE showed a direct effect on CTD($\beta=.398$) and CTD($\beta=.433$) showed a direct effect on PSS. The findings indicate the necessity of developing educational programs to enhance nursing student's SE for increasing of MTL.

• Key Words : Nursing students, Self esteem,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Problem solving skill, Motivation toward learning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국내 간호학과는 간호교육인증평가를 통해 2016년까

지 81개 전문대학내 간호과가 4년제로 지정받으면서[1], 간호교육의 4년제 일원화가 실현되게 되었고, 이에 맞춰 간호교육도 강화되면서 모든 간호대학들은 간호지식과

*Corresponding Author : 임정혜(blueljh22@naver.com)

Received August 23, 2017

Accepted October 20, 2017

Revised October 2, 2017

Published October 28, 2017

기술을 갖춘 양질의 간호사 양성을 위해 새로운 학습방법의 개발과 운영에 노력을 기울이며 질적 향상을 꾀하고 있다.

취업난이 심각해지면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취업을 위하여 간호학과를 선택하게 되고[2], 대학 입학정원수가 고등학생수보다 증가하면서 대학 수험능력이 미약한 채로 입학한 신입생들은 고난이도의 전공과목에서 학습부진을 보이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3]. 입학 후 간호대학생들은 타과에 비해 높은 학업적 스트레스와 교수관계, 시험, 취업 등 여러 가지 스트레스 요인에 노출되게 되고, 국가고시와 임상실습 등 과중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4,5]. 이에 간호대학생들이 간호학 전공과목에 흥미를 가지고 효과적 학습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 마련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간호학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갖고, 학문적 탐구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학습동기 자극과 유발이 필요하고, 선행되어야 한다.

학습동기는 학습자가 자신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으로, 학습에 있어 의미 있고 깊은 수준의 학습을 가능케 하여 학업성취도 및 학습효과 증진을 가져오게 된다[6]. 학습동기가 높은 학습자는 학습상황에서 자신이 학습을 주도하고 관리하면서 학습을 잘 하기 때문에[7], 자유로운 대학생활 동안 스스로 학습계획을 세우고 학습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자원이 된다. 이렇듯 학습에 있어 중요한 학습동기 향상을 위해 선행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으며, 이 중 이성희[8]는 학습동기향상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학습습관과 자아존중감을 높였다. 자아존중감은 학습자의 학업성취도를 예측할 수 있는 변인으로 여러 연구에서 언급되고 있으며[8], 자아존중감이 높은 수준의 사람이 자신의 학습과제를 스스로 계획하고 주도하려는 경향이 높았다[9]. 즉, 학습동기 향상을 위해서는 자아존중감 향상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자아존중감이란 자신을 존경하고 바람직하게 여기며,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자아존중감이 높은 경우에 대부분 자기표현에 대한 능력, 자기확신, 인내, 잠재적인 지도력, 재주, 지능과 숙련도, 좋은 인상을 주는 능력, 사회적인 기술, 실용적인 기술 등의 특성을 보인다[10]. 즉, 자아존중감이 높은 학생은 개인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낙관적인 신념을 소유하고 있으며 적응 과정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11]. 이러한 자아존중감이 바탕이 되어 자기 스스로 판단하는 비판적 사고가 가능해지

게 되므로, 자아존중감이 높으면 비판적사고성향도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2,13]. 따라서 자아존중감과 비판적사고는 빠르고 다양하게 변화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요구되는 요인인 것이다[13].

비판적사고는 평가와 판단을 위한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로서, 특히 개인적 또는 전문적인 일에 있어서 문제해결과 의사결정을 이끌어 내기 위한 목적으로 중요하다. 또한 자기 스스로 판단하는 개인적인 성향으로 자기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제시하면서 정보의 적용, 분석, 종합, 추론 및 효율적 의사결정이 가능한 간호사 양성이 목표인 간호교육의 중요한 과제로 강조되고 있으며[14], 간호대학인증 평가 기준에도 포함되어져 왔다. 간호사는 복잡하고 예측할 수 없는 임상간호현장에서 대상자의 문제를 인식하고, 비판적사고를 중심으로 관련된 과학적 근거를 찾아내고, 이를 통합적으로 사고하고 실무에 적용하여 대상자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 즉, 간호교육 과정을 통해 간호지식과 기술을 배우고, 이를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연구하는 이유는 비판적사고 능력 함양으로 다양하고 급변하는 의료현장에서 대상자의 문제해결능력을 키우기 위함이다. 많은 연구들에서 비판적사고 성향과 문제해결능력이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15], 이에 문제해결능력 함양을 위해 비판적 사고의 함양은 선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문제해결능력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제를 명료화하고 원인 분석을 통해 대안을 개발하고 문제해결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다[16]. 임상적 추론, 판단과 비판적사고를 핵심으로 하는 문제해결능력은 간호학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으로[17,18], 비판적사고 함양과 문제해결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방법들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19,20].

현재 간호교육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자아존중감, 비판적사고, 문제해결능력에 대한 관계를 파악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어져 왔으며, 이 연구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학교에서의 전공학습이 과학적 근거로 임상실무와 연결되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간호교육현장에서 간호대학생들은 기초전공교과목과 전공교과목의 연계부터 힘들어 하고 있다. 따라서 학습동기와 관련된 자아존중감, 비판적사고, 문제해결능력 변수들간의 각각의 관계 파악에 대한 연구가 아닌 전체의 경로를 파악할 수 융합적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들의 자아존중감, 비판적사고, 문제해결능력과 학습동

기 정도를 파악하고, 자아존중감이 비판적사고성향과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고 이는 학습동기를 향상시킨다는 가설을 설정하여 이들 간의 융합적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학습동기 향상을 위한 전략마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1.2 연구의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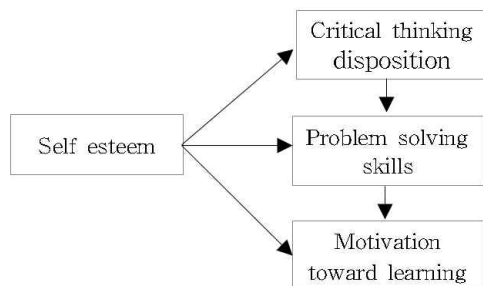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비판적사고성향, 문제해결능력, 학습동기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가.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비판적 사고성향, 문제해결능력, 학습동기 정도를 파악한다.
- 나.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비판적사고성향, 문제해결능력, 학습동기와의 관계를 파악한다.
- 다.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비판적사고성향, 문제해결 능력과 학습동기와의 경로모형을 검증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편의추출한 국내 일 대학 간호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 비판적사고성향, 문제해결능력 및 학습동기 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문헌고찰과 선행연구를 토대로 자아존중감, 비판적사고성향, 문제해결능력을 내생변수, 학습동기를 결과변수로 하는 가설적 경로모형을 구축하였다. 자아존중감이 비판적사고성향, 문제해결능력에 영향을 미치고 이들이 학습동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경로모형을 설정하고, 모형의 적합도와 가설을 검증하는 경로분석 연구이다 <Figure 1>.



[Fig. 1] Theoretical framework

2.2 자료수집 절차 및 방법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16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이루어졌으며, 경상남도에 위치한 일 대학의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편의추출 하였다.

연구대상자에게 연구목적을 설명하였고, 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설문지를 작성하기 전과 진행기간 동안 연구대상자가 어떠한 위해도 받지 않을 것이며, 참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참여를 거부할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연구 목적과 설문지 내용을 이해하고 참여를 허락한 자로서, 서면으로 동의 받은 후 시행하였고, 설문조사는 총 20분이 소요되었다. 총 215명의 자료가 수집되었으나, 응답이 누락되거나 불성실한 8부를 제외한 207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구조방정식을 이용하는 경우 표본의 크기가 200명 이상이어야만 복잡지수들의 모형에 대한 올바른 결론을 유도할 수 있다는 근거에 의하여[21], 본 연구에 사용된 표본의 크기는 적합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자아존중감

본 연구에서는 Rosenberg[22]의 자아존중감 측정도구를 전병재[23]가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10 문항으로 Likert 척도이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Cronbach's α =.84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4이었다.

2.3.2 비판적 사고성향

본 연구에서는 윤진[24]이 간호학을 중심으로 하여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27개 문항으로 7개 요인인 건전한 회의성, 객관성, 체계성, 신중성, 지적열정(호기심), 지적공정성, 자신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비판적 사고 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윤진[24]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84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7이었다.

2.3.3 문제해결능력

본 연구에서는 한국교육개발원[25]에서 개발된 생애능력 측정 도구 중 대학생/성인용 문제해결 능력 측정도

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45개 문항으로 9개의 하위 영역인 문제인식, 정보수집, 분석능력, 확산적 사고, 의사결정, 기획력, 실행과 모험 감수, 평가, 피드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해결 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94$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3이었다.

2.3.4 학습동기

본 연구에서는 Keller[26]의 IMMS(Instructional Materials Motivation Scale)를 장희정[27]이 변안 및 개발하고, 이를 황선영[28]이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27개 문항으로 4개 요인인 주의집중, 관련성, 자신감, 만족감으로 구성되었고, Likert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학습동기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황선영[28]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83$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2이었다.

2.4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PASW 18.0, AMOS 18.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 가.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과 자아존중감, 비판적 사고성향, 문제해결 능력, 학습동기는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였다.
- 나. 일반적 특성과 자아존중감, 비판적 사고성향, 문제해결능력, 학습동기는 t-test, χ^2 , ANOVA로 분석하였으며, 사후검증은 Bonferroni test를 실시하였다.
- 다. 각 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 라. 자아존중감, 비판적 사고성향, 문제해결능력 및 학습동기간의 관계는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절대적합지수 χ^2 , Normed χ^2 (CMIN/df), GFI, AGFI, RMSEA, 증분적합지수 CFI, NFI를 사용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였고, 간접효과와 총 효과의 유의성은 Bootstrapping으로 검증하였다.

3. 연구 결과

3.1 대상자의 특성

대상자의 연령은 21-24세가 122명(58.9%)이었고, 여

학생이 187명(90.3%)이었다. 입학유형은 정원 내 입학이 157명(75.8%), 최종학력은 고졸이 168명(81.2%)이었다. 학점은 평균 3.0 이상이 133명(64.3%), 3.0미만이 74명(35.7%)이었다. 1학년이 75명(36.2%), 2학년이 74명(35.8%), 3학년이 58명(28.0%)이었다<Table 1>.

3.2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비판적 사고성향, 문제해결능력, 학습동기 정도

대상자의 자아존중감은 37.6점, 비판적 사고성향은 96.2점, 문제해결능력 정도는 160.6점이었으며, 학습동기는 87.5점이었었다<Table 2>.

3.3 대상자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비판적 사고성향, 문제해결능력, 학습동기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정도는 남학생이 여학생이 높았고($\chi^2=67.046$, $p=.000$), 25세 이상이 20세미만보다 ($F=3.221$, $p=.042$), 학점이 3.0 이상인 군이 3.0미만인 군보다($t=2.884$, $p=.004$)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점이 3.0 이상인 군이 3.0미만인 군보다 문제해결능력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t=2.881$, $p=.004$).

학습동기 정도는 21세 이상이 20세미만보다 높았고 ($F=10.410$, $p=.000$), 학점이 3.0 이상인 군이 3.0미만보다 ($t=4.414$, $p=.000$), 2, 3학년이 1학년보다($F=14.798$, $p=.000$)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3.4 자아존중감, 비판적 사고성향, 문제해결능력, 학습동기 간의 상관관계

자아존중감과 비판적 사고성향, 문제해결능력, 학습동기는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또한 비판적 사고성향과 문제해결능력, 학습동기도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 문제해결능력과 학습동기도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Table 3>.

3.5 모형의 적합도 검증

가설적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한 결과 절대적합지수 $\chi^2/df=2.128$, GFI=.995, AGFI=.949, RMSEA=.074로 나타났고, 증분적합지수 CFI=.993, NFI=.988로 나타나 모든 적합도지수가 권장수준을 충족하여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Table 1> Comparison of self esteem, problem solving skills,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motivation toward learning (N=207)

| characteristics | n(%) | Self esteem | |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 | Problem solving skills | | Motivation toward learning | | |
|---------------------|------------------------|-------------|---------------------------|-------------------------------|---------------------------|------------------------|---------------------------|----------------------------|---------------------------|------------------|
| | | M±SD | t/F/x ² (p) | M±SD | t/F/x ² (p) | M±SD | t/F/x ² (p) | M±SD | t/F/x ² (p) | |
| Age (yr) | <20 ^a | 49(23.7) | 37.2±5.5 | | 93.6±10.3 | 3.221 (.042) | 157.1±15.9 | 1.662 (.192) | 80.1±11.4 | 10.410 (.000) |
| | 21~24 ^b | 122(58.9) | 37.5±5.5 | .884 (.415) | 96.6±9.3 | | 161.4±15.4 | | 89.5±14.1 | |
| | ≥25 ^c | 36(17.4) | 38.7±4.9 | | 98.6±8.6 | a<c | 162.6±16.4 | | 91.1±11.9 | a<b,c |
| Sex | male | 20(9.7) | 38.7±8.8 | 67.046 (.000) | 102.4±7.7 | 45.293 (.261) | 162.8±16.2 | 56.946 (.624) | 88.2±13.3 | 50.894 (.668) |
| | female | 187(90.3) | 37.5±5.0 | | 95.6±9.5 | | 160.4±15.7 | | 87.5±13.8 | |
| Method of admission | General admission | 157(75.8) | 37.5±5.4 | 19.479 (.816) | 96.0±9.7 | 39.546 (.491) | 161.3±15.7 | 51.531 (.801) | 87.7±13.8 | 52.712 (.600) |
| | Special admission | 50(24.2) | 37.8±6.0 | | 96.7±9.1 | | 158.5±15.9 | | 87.1±13.4 | |
| Education | High school graduation | 168(81.2) | 37.4±5.5 | 19.196 (.828) | 95.9±9.6 | 37.491 (.584) | 160.6±15.6 | 57.674 (.597) | 87.6±13.4 | 60.983 (.301) |
| | Higher in college | 39(18.8) | 38.3±4.9 | | 97.3±9.2 | | 160.4±16.4 | | 87.3±15.1 | |
| Grade Point Average | ≥3.0 | 133(64.3) | 38.0±5.1 | 1.397 (.165) | 97.6±9.1 | 2.884 (.004) | 162.9±15.3 | 2.881 (.004) | 90.5±13.6 | 4.414 (.000) |
| | <3.0 | 74(35.7) | 36.9±5.9 | | 93.7±9.8 | | 156.4±15.7 | | 82.1±12.3 | |
| Grade | 1st ^a | 75(36.2) | 37.1±5.3 | | 95.2±10.9 | | 158.3±18.0 | | 81.1±13.8 | |
| | 2nd ^b | 74(35.8) | 37.3±6.0 | 1.225 (.296) | 96.6±9.4 | .712 (.492) | 162.0±14.2 | 1.256 (.287) | 91.1±13.0 | 14.798 (.000) |
| | 3rd ^c | 58(28.0) | 38.5±4.9 | | 97.1±7.7 | | 161.7±14.3 | | 91.3±11.3 | a<b,c |

a,b,c : Bonferroni test

<Table 2> Self esteem, problem solving skills,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motivation toward learning

| Variables | Mean(SD) | Range(Min-Max) |
|-------------------------------|--------------|----------------|
| Self esteem | 37.6(5.43) | 19.0-50.0 |
|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 96.2(9.54) | 71.0-131.0 |
| Problem Solving Skills | 160.6(15.74) | 125.0-212.0 |
| Motivation toward Learning | 87.5(13.70) | 42.0-125.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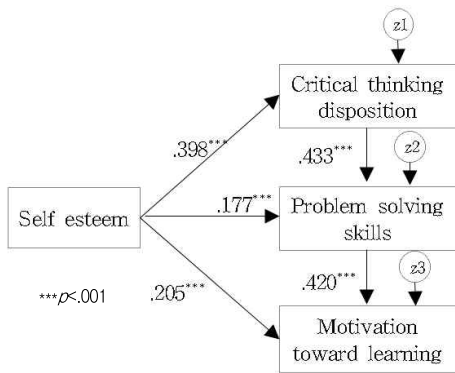
<Table 3> Correlation among self esteem, problem solving skills,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motivation toward learning

| Variables | Self esteem |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 Problem Solving Skills | Motivation toward Learning |
|-------------------------------|-------------|-------------------------------|------------------------|----------------------------|
| Self esteem | 1 | | | |
|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 .417** | 1 | | |
| Problem Solving Skills | .349** | .549** | 1 | |
| Motivation toward Learning | .352** | .400** | .492** | 1 |

**p<0.05

<Table 4> Goodness of Model

| Fit Index | χ ² /DF | GFI | AGFI | RMSEA | CFI | NFI |
|----------------|--------------------|-------|-------|-------|-------|-------|
| Optical model | ≤3 | ≥0.9 | ≥0.9 | ≤0.08 | ≥0.9 | ≥0.9 |
| Modified model | 2.128 (p=.145) | 0.995 | 0.949 | 0.074 | 0.993 | 0.988 |



[Fig. 2] Path analysis for the model

자아존중감과 비판적사고성향($\beta=.398$), 문제해결능력($\beta=.177$), 학습동기($\beta=.205$)에 대한 경로계수 모두 유의하였고, 문제해결능력에 대한 비판적사고성향의 경로계수($\beta=.433$), 학습동기에 대한 문제해결능력($\beta=.420$)의 경로계수 모두 유의하였다.

자아존중감이 비판적사고성향을 높이고, 비판적 사고 성향은 문제해결능력을 높여 학습동기를 향상시킨다는 가설은 유의하게 나타났다<Figure 2>.

3.6 모형의 효과분석

자아존중감은 비판적사고성향($\beta=.398, p<.001$), 문제해결능력($\beta=.177, p=.006$), 학습동기($\beta=.205, p=.001$)에 직접효과가 있었고 문제해결능력($\beta=.172, p=.010$)과 학습동기($\beta=.147, p=.004$)에 간접효과도 있었으며 모두 유의하였다. 비판적사고성향은 문제해결능력($\beta=.433, p<.001$)에 직접효과가 있었고 학습동기($\beta=.182, p=.014$)에는 간접효과를 나타내었으며 유의하였다. 문제해결능력은 학습동기($\beta=.420, p<.001$)에 직접효과가 있었고 유의하였다.

학습동기에 미치는 총 효과는 문제해결능력($\beta=.420, p<.001$)이 가장 컸고, 문제해결능력에는 비판적사고성향($\beta=.433, p<.001$)의 총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유의하였다<Table 5>.

<Table 5>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and total effect in path model

| | Path | Direct effect (ρ) | Indirect effect (ρ) | Total effect (ρ) |
|-------------------------------|---------------------------------|--------------------------|----------------------------|-------------------------|
| Self esteem | →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 0.398 ($<.001$) | | 0.398 ($<.001$) |
| Self esteem | → Problem Solving Skills | 0.177 (.006) | 0.172 (.010) | 0.349 (.012) |
| Self esteem | → Motivation toward Learning | 0.205 (.001) | 0.147 (.004) | 0.352 (.009) |
|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 → Problem Solving Skills | 0.433 ($<.001$) | | 0.433 ($<.001$) |
|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 → Motivation toward Learning | | 0.182 (.014) | 0.182 (.014) |
| Problem Solving Skills | → Motivation toward Learning | 0.420 ($<.001$) | | 0.420 ($<.001$) |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비판적사고, 문제해결능력이 학습동기의 선행요인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경로모형을 구축하고 검증하셔서, 이들 변인간의 인과관계와 직·간접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은 37.6점(평균 3.76)으로 동일한 대상으로 3.84점을 보고한 선행연구와 유사하며[29], 남학생이 높게 나온 결과도 선행연구를 지

지하고 있다[30]. 대체로 간호대학생들은 자신을 존경하고 바람직하게 여기며,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급변하는 의료현장에서 간호사들은 신체적, 정신적 질환의 대상자를 만나게 되고, 이러한 일상이 반복되는 현실에 놓이게 되므로, 간호대학생때부터 자아존중감 향상 전략으로 어렵고 힘든 임상현장에서 자신들의 삶을 진취적이고 활동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비판적사고성향은 96.2점(평균 4.03)으로, 25세이상과

학점이 높은 경우에 비판적사고성향이 높았으며, 이는 박인순, 김란[31]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간호대학생의 비판적사고성향이 향상된 점수를 나타낸 것은 간호교육 인증평가와 더불어 간호교육에서 비판적사고성향 함양을 중요시하면서 많은 훈련과 학습환경을 조성해 노력해 온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비판적사고 과정은 개인의 사고 체계를 전환해야 하는 이념적인 차원의 문제이기에 단기간에 습득되어지지 않으므로 향후에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학습을 통해 훈련되어야 할 것이다[32]. 25세 이상의 학생은 대학졸업 후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미 이전의 대학교육 과정이나 사회생활을 통해 많은 문제에 당면하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비판적사고의 함양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학점이 높은 학생들의 대부분은 학습에 대한 열의가 높고, 많은 학습을 통해 대상자의 문제를 발견하고 원인을 찾아내는 노력을 통해 비판적사고성향이 높아졌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문제해결능력은 160.6점(평균 3.57점)으로 158.0점을 나타낸 선행연구 결과와 유사하였고[33], 학점이 높은 경우에 문제해결능력이 높게 나타난 연구결과[32]와 유사한 맥락이다. 문제해결능력 정도는 중간 수준으로, 이는 현재의 간호교육과정의 내용과 교육방법이 문제해결과정에 대한 이해나 기술을 습득하기에 아직도 부족함을 보여주고 있다. 다양한 교수 방법들이 소개되고 있으나, 간호교육 현장에서는 대부분이 암기위주의 주입식 교육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임상 실무 문제에 대한 대처능력을 함양하고, 준비를 시키기에는 아직 부족한 실정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지식위주의 교육에서 문제해결능력이 키워질 수 있는 학습모형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며, 하영옥[34]은 시뮬레이션 수업 같은 가상의 임상상황을 다루는 프로그램이 문제해결능력 향상에 적절하다고 하였다. 학점이 높은 학생인 경우 문제해결능력이 높았던 것은 비판적사고성향이 높았던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여진다.

학습동기는 87.5점(평균 3.24점)으로 87.9점을 나타낸 선행연구결과와 유사한 수준이며[33], 20세미만과 1학년에서 가장 낮았고, 학점이 높은 경우에 학습동기가 높았다. 간호대학생들의 학습동기는 향상되지 못하고, 중간수준에 머물고 있다. 수업집중, 관심 등 스스로 학습하고자 하는 학습동기가 낮은 상태로 저학년을 보내게 되고, 고학년이 되어 임상실습 및 많은 분량의 전공과목 학습이

라는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게 되며 결국은 국가고시에 압박하여 학습을 하게 된다. 또한 대학입시와 취업에 밀려 입학하게 된 20세미만, 1학년들의 경우 학습동기가 낮게 나타난 것은 예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저학년 때부터 간호대학생들의 학습동기 파악이 선행되고, 이를 근거로 졸업시까지 학습동기를 자극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은 비판적사고, 문제해결능력, 학습동기에 선행요인으로 작용하며 직접효과가 있었고, 특히 비판적사고에 총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는 자아존중감과 비판적사고[13], 자아존중감과 문제해결능력[35]간에 순 상관관계를 보였던 결과와 자아존중감이 학습동기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던 결과[36]와 유사하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학생은 비판적사고와 문제해결능력이 높고, 이는 학습동기 향상으로 이어지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심리적 요인인 자아존중감이 개인이 자기 자신에게 내리는 평가로 개인의 행동과 적응을 결정하는 핵심적 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36]. 자아존중감의 비판적사고성향, 문제해결능력, 학습동기 향상에 직접효과를 나타낸 것은 자신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긍정적 신념이 전공 학습과 임상실습에서 여러 가지 문제와 직면했을 때, 회피하지 않고 비판적사고를 통해 과학적 근거들을 찾아내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게 되며, 결국에는 문제를 해결하게 됨으로써 학생들은 성취감을 느끼게 될 것이고, 의미있고 지속적인 학습을 가능하게 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학습성과를 기반으로 한 간호교육과정 구성 시, 모든 교육과정과 교과 외 활동에 학생들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기반으로 하여 구성한다면, 이는 곧 비판적사고와 문제해결능력의 향상으로 이어지고 이는 곧 학생들이 어려운 전공 학습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문제해결능력은 학습동기에 가장 큰 직접효과가 있었고, 비판적사고는 문제해결능력을 통한 간접효과를 보였는데, 이는 문제중심학습(PBL)을 통해 학습동기와 비판적사고, 문제해결능력이 향상되었던 연구와 유사한 맥락이다[19,20]. 동기에 대한 연구는 인간의 행동을 변화시켜 더 나은 학습효과를 이루어보려는 교육의 목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37]. 따라서 자신을 가치있는 존재로 생각하고 존중하는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그 교육과정 속에

서 간호대학생들이 끈임없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고 해결하는 훈련을 거친다면 비판적사고는 함양되고 문제해결능력도 향상되어 이는 곧 학습동기 자극과 학습동기 향상으로 이어지고, 간호교육 목표 달성에 더욱 근접할 수 있게 될 수 있을 것이다.

간호학과 선택 동기가 무엇이든 간에 간호대학생들은 많은 전공교과목 학습과 임상실습이라는 힘든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게 되어 학문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학습동기는 학습몰입과 학과 만족도를 설명해주는 높은 예측변인으로 학습자 자신이 주도적으로 전략을 세우고 이에 따라 자신이 학습 전체를 주도하고 관리하게 되는 것으로 결국 학습흥미가 유발되고 즐거움을 경험하게 된다[39]. 따라서 간호대학생들이 자신이 놓인 현실을 확인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대안들을 주도적으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교육과정과 교수방법들이 개발되어야 한다. 그 속에서 간호대학생들의 학습동기는 지속적으로 자극될 것이고 이는 학습몰입과 학과만족도로 이어질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자아존중감, 비판적사고, 문제해결능력이 선행요인으로서 학습동기에 직접효과, 간접효과를 나타내는 경로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간호대학생의 학습성과기반 교육과정을 구성하는데 있어 이를 활용하여, 자아존중감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교육과정 내에 비판적사고를 함양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끈임없이 훈련한다면, 이는 곧 문제해결능력과 학습동기 향상으로 이어지는, 한층 더 높아진 간호교육의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사료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 비판적 사고, 문제해결능력, 학습동기 정도를 파악하고, 이들 간의 인과관계와 경로를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이 높으면 비판적사고성향, 문제해결능력이 높고, 학습동기도 높아지므로, 학습동기 향상을 위해서는 간호대학생들의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키는 중재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간호사는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다양한 임상문제에 직면하고 끈임없이 문제해결 과정에 놓이게 되므로,

간호대학 교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지속적으로 학문을 탐구하고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교육과정과 교수 방법 등의 개발과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일 대학 간호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이 있으며, 추후 간호대학생의 학습동기와 관련된 원인변수에 대한 확대와 연구대상의 확대를 제언하는 바이다.

REFERENCES

- [1] http://kabone.or.kr/new/new05_01.php
- [2] J. H. Lim, "Construction of a Structural Model about Nursing Students' Academic Motivation, Ego-resilience, and Satisfaction in Major",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 16, No. 4, pp. 2273-2284, 2014.
- [3] S. M. Park, "Development of Learning Strategy Scale for College Students", *Journal of Fisheries and Marine Sciences Education*, Vol. 21, No. 1, pp. 16-27, 2009.
- [4] H. J. Park, I. S. Jang, "Stress, depression, coping styles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6, No. 1, pp. 14-23, 2010.
- [5] H. Y. Jung, "The convergence influence if life stress, depression and ego resiliency on college life adaptat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4, No. 7, pp. 259-268, 2016.
- [6] S. M. Han,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academic motivation variables, cognitive strategies and academic achievement",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 18, No. 1, pp. 329-350, 2004.
- [7] N. J. Huh, *An Analytical Study on the Predictability of Self-Directed Learning on Learners' Variables*. Hong-Ik University, Ph.D. thesis, 2004.
- [8] S. H. Lee, "Effects of Learning Motive Enhancing

- Program on Academic Self Efficacy, Learning Habits, and Self Esteem in Underachieve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2, No. 1, pp. 5-12, 2006.
- [9] H. S. Park, Y. J. Bae, S. Y. Jung, “A Study on Self-esteem, Self-efficacy, Coping Methods, and the Academic and Job-seeking Stress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Vol. 11, No. 4, pp. 621-631, 2002.
- [10] M. Rosenberg, Self-concep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In R. L. Leady (ed.), *The development of the self*, Orlando, FL: Academic Press, 1985.
- [11] S. J. Lee, J. H. Yoo, “The Mediation Effect of Self-Efficacy between Academic and Career Stress and Adjustment to college”,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 22, No. 3, pp. 589-607, 2008.
- [12] S. Y. Lee, S. Y. Jeon, Y. Y. Kim, “The Effects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Self-esteem to Self-leadership of Nursing Student”,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Vol. 10, No. 1, pp. 155-165, 2016.
- [13] J. I. Lee, “Self Esteem, Self Efficacy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5, No. 2, pp. 166-174, 2009.
- [14] P. A. Facione, N. C. Facione, *The california critical thinking skill test manual (3rd ed)*. California Academic Press, 1994.
- [15] J. H. Choi, “Factors Influencing Problem Solving Ability of Nursing Students in Local Cities : Focus on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 13, No. 5, pp. 2473-2485, 2011.
- [16] R. Alfaro-LeFevre, *Critical thinking in nursing: A practical approach*, W. B. Saunders, 1999.
- [17] L. Chartier, “Use of metacognition in developing diagnostic reasoning skills of novice nurses”, *Nursing Diagnosis*, Vol. 12, No. 2, pp. 55-60, 2001.
- [18] F. Terzioglu, “The perceived problem-solving ability of nurse managers”, *Journal of Nursing Management*, Vol. 14, pp. 340-347, 2006.
- [19] Y. A. Song, “Comparison of Learning Satisfaction,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Learning Attitude and Motivation between PBL and SBL Groups”, *Journal of Korean Academy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4, No. 1, pp. 55-62, 2008.
- [20] S. J. Kang, E. J. Kim, H. J. Shin, “Convergence Study about Problem-based Learning and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Problem Solving Skills, Academic Self-efficacy, Motivation toward Learning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7, No. 2, pp. 33-41, 2016.
- [21] G. S. Kim, *Analysi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 Hannarae Publishing, 2007.
- [22] M. Rosenberg,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5.
- [23] B. J. Jeon, “Self-esteem: a test of its measurability”, *Yonsei Nonchong*, Vol. 11, pp. 107-130, 1974.
- [24] J. Yoon, *Development of an instrument for the measurement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 in nursing*. Catholic University, Ph.D. thesis, 2004.
- [25] S. J. Lee, Y. K. Jang, G. Y. Park, *Study on the development of life-skills: communication, problem solving, and self-directed learning*, Korea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2003.
- [26] J. M. Keller, *Motivation design of instruction*. In C.M. Reigeluth(Ed.). *Instructional-design theories and models: An overview of their current status*, Lawrence Erlbaum Association, 1994.
- [27] H. J. Jang, *The development and effectiveness of Courseware for Injection*. Ewha Women University. Ph.D. thesis, 1996.
- [28] S. Y. Hwang. *Effects of Problem-Based Learning on the Knowledge Achievement, Critical Thinking Ability, Attitude and Motivation toward Learning of Nursing Students*. Chonnam

- National University, Ph.D. thesis, 2003.
- [29] M. S. Kim, "Moderating Effects of Self-Esteem and Self-Efficac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Satisfaction in their Major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7, No. 2, pp. 159-167, 2011.
- [30] S. U. Yook, Y. S. Kwon, "Relationship between test anxiety and self-esteem in partial health related department convergence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6, No. 5, pp. 91-97, 2015.
- [31] I. S. Park, R. Kim,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Clinic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Vol. 7, No. 4, pp. 105-117, 2013.
- [32] S. A. Yang,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Problem Solving Abilit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 16, No. 4, pp. 389-398, 2010.
- [33] M. J. Sim, H. S. Oh, "Influence of Self Efficacy, Learning Motivation, and Self-Directed Learning on Problem-Solving Ability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n Contents Association, Vol. 12, No. 6, pp. 328-337, 2012.
- [34] Y. O. Ha, J. Y. An, "A Convergence Study on the Effects of Core Nursing Skills Improvement Program on Nursing Skills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8, No. 5, pp. 223-231, 2017.
- [35] M. S. Yoo, Y. S. Kim, M. S. Hwang, J. A. Ahn, "Analysis of Self-Esteem,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Problem-Solving Capacity in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Health Communication, Vol. 7, No. 1, pp. 18-27, 2012.
- [36] J. Y. Kim, "The mediation effect of depression between self-esteem and academic motivation in dental hygiene student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Vol. 14, No. 4, pp. 503-509, 2014.
- [37] Y. J. Ha, J. H. Ha, "The Mediating Effect of Learning Flow among Learning Motivation and Learning Satisfaction, Achievement on a base of e-learning environment", The Journal of Educational Information and Media, Vol. 17, No. 2, pp. 197-217, 2011.

저자소개

임 정 혜(Junghye Lim)

[정회원]



- 1999년 8월 : 가톨릭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석사)
- 2009년 8월 :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5년 11월 ~ 현재 : 창원문성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 성인간호학, 기본간호학, 간호교육, 노인간호학, 감염관리, 종양환자간호